

바둑의 특별한 효용 - 삶의 교훈과 지혜 -

The Special Use of Go: Life Lessons and Wisdom

정수현

Jeong Soohyeon

명지대학교

Myongji University

Abstract: Since ancient times, the game of Go has been recognized as uniquely providing life lessons and wisdom. Regarding the Go wisdom theory, the researcher has conducted a lot of research in response to the needs of society. Based on such experiences, I will consider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theory of the wisdom of G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otion that life lessons and wisdom can be obtained from Go seems to have originated from the recognition that Go and life are similar. The Go wisdom theory has existed implicitly since the old days, but the content was not clearly presented, and in modern times, the demand for it has been strongly expressed by business managers.

Second, the lessons and wisdom of Go are contained in many Go proverbs that contain attitudes and knacks for playing Go, and some are inherent in the special practices or culture of the Go world. It can also be found in the techniques that contain the shape of Go stones.

Third, the lessons and wisdom that can be learned from Go are about mindset and perspective, problem-solving skills, competitive strategies, leadership, crisis management, self-development and education. If you look at it more broadly,

it can be expanded to marketing management and how to get on in society.

This theory of wisdom in Go can be said to be meaningful because it allows people to naturally acquire life lessons and wisdom, or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it anew, and because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showing unique knowledge that is unique to Go.

In the field of Go,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study these contents and develop programs so that many people can utilize the lessons and wisdom of Go.

Keywords: Use of Go, Life lesson, Wisdom

I. 들어가며

바둑에는 다른 분야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바둑기술을 100여 개의 격언으로 가르치기, 경기가 끝나고 복기를 하는 관습, 부채에 기사들의 휘호를 담아 증정을 하는 문화 같은 것들이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바둑에서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얻는다는 관념이 아닐까 한다.

바둑에서 얻는 5가지 이득을 담은 <위기오득(圍棋五得)>에는 호우(好友), 인화(人和), 교훈(教訓), 심오(心悟), 천수(天壽)를 얻는다고 나와 있다. 이 중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타인과 화합하고, 천수를 누리는 것은 다른 취미에서도 얻을 수 있는 효용(效用)이다. 그러나 교훈과 심오(깨달음)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오락으로 즐기는 게임에서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바둑인이나 바둑팬들은 바둑의 이런 효용에 관하여 별 관심이 없다. 대중에게 바둑의 좋은 점을 알리기 위하여 바둑이 아동발달,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바둑이 살아가는 데 유익한 인생공부가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바둑을 즐기면서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그로 인해 살아

가는 데 도움을 받는다면 그 유익함이 결코 적지 않을 텐데도 말이다.

연구자는 지금까지 바둑과 인생에 관한 글을 많이 써 왔다. 잡지나 웹사이트에 ‘바둑과 인생’, ‘바둑에서 배우는 처세술’, ‘바둑으로 세상 보기’, ‘세상사 바둑 한판’과 같은 칼럼을 연재하였다. 또한 <인생과 바둑>이라는 책을 내고 다른 수필집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었다. ‘바둑과 인생’의 하위 주제로 ‘바둑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를 다루고, 의사결정, 행정, 교육, 전략 등을 얘기하기도 했다. <바둑 읽는 CEO>, <고수경영>이라는 책을 내고 신문이나 사보 등에 관련된 칼럼을 썼다.

이 글에서는 개인적으로 바둑과 인생의 관계에 관하여 체험한 것을 토대로 바둑에서 배우는 교훈과 지혜에 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첫째, 바둑에서는 왜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는다는 관념이 생겼을까?

둘째, 바둑의 어떤 영역에서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셋째, 바둑에서 얻는 삶의 교훈과 지혜는 어떤 것인가?

II. 바둑과 인생의 관계

1. 바둑과 인생의 유사성

예로부터 바둑은 인생, 혹은 세상사와 닮았다고 인식되어왔다. 이런 인식으로부터 사람들이 바둑으로부터 삶의 교훈과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바둑과 인생이 닮았다면 바둑에서 인생에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 있으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둑과 세상사가 닮았다는 주장은 옛날의 시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인 동파(東坡) 소식(蘇軾)은 자신이 쓴 시에서 ‘세도여혁기(世道如奕棋)’라고 말했다. 세상을 사는 이치가 바둑과 같다는 뜻이다. 베트남의 시

인 Nguyen Phi Khanh(1335~1428)도 ‘관위기(觀圍棋)’라는 시에서 ‘만사여기(萬事如棋)’라고 읊었다(Le, 2018). 세상만사가 바둑과 같은 뜻이다. 이들은 바둑이 세상사와 닮았다고 표현했는데, 어떤 점에서 닮았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문인들이 시에서 종종 바둑과 인생의 유사성에 관한 감흥을 노래했다. 고려시대에 바둑시를 많이 남긴 이규보는 ‘희선사방장관기(希禪師方丈觀棋)’라는 제목의 시에서 “열아홉 줄 바둑판 위에서 벌어지는 천태만상은 세상의 흥망사가 분명하구나.”라고 읊었다. 또한 조선조의 문인이자 정치가였던 서거정도 ‘견소아위기감탄유작(見小兒圍棋感歎有作)’이라는 바둑시에서 아이들의 바둑 두는 장면을 보며 “인간사가 어린아이들 장난 같지 않은가(人間何事不兒嬉)”라고 읊고 있다(권경언, 1995). 서거정이 정확히 어떤 점에서 닮았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아이들처럼 별 생각 없이 직감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현군 정조대왕이 바둑을 읊은 시에서 “세상사 승패 다투는 일, 한 판의 바둑일세.”라고 표현했다. 바둑판에서 승리하려고 경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행태와 닮았다고 본 것이다.

현대에 와서도 시인들은 바둑에서 인생을 노래하고 있다. 이민각, 이득현 등의 시인들이 바둑을 주제로 한 시를 읊었는데, 이득현의 시에는 “다 잡아 놓은 말이 꿈틀거리고 다 죽었던 말이 구사일생한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가 이리도 어려울까. 인간사가 다 이러하노라.”라고 되어 있다(정수현, 2013).

현대에 와서는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미국 바둑협회에서 발간하는 American Go Journal에서는 비슷한 뜻으로 ‘analogy for life’라고 표현하고 있다.

바둑과 인생의 닮은 점은, 둘 다 끊임없이 선택 즉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해야 한다는 것, 생존을 위한 경쟁이라는 점, 초반·중반·종반의 단계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정수현(1997)은 반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9가지 유사점을 제시하였다.

- 변화막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 나름대로 하나의 인생이며, 한 판의 바둑이다.
- 원리와 이론이 있으나, 실제로는 이것을 초월해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욕망이 모든 사건의 기저를 이루지만,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파멸에 이른다.
- 생존경쟁을 위한 투쟁이 바둑과 인생의 본질이나, 수시로 타협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 바둑과 인생 모두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된다.
- 실수를 피하기 어려우며,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 부분적 성과를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 기발하고 약삭빠른 방식이 효과적인 듯하나, 결국에는 정도를 당해 내지 못한다.

2. 세상사의 메타포

바둑과 인생의 유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하나는 세상사를 바둑에 빗대 얘기하는 관행이고, 다른 하나는 매스컴에서 사회현상을 가리키는 시사용어로 바둑용어를 쓰는 현상이다. 세상사를 바둑에 비유하는 관행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신앙을 바둑에 비유하면
- 공부를 바둑에 비유
- 주식투자 18단계를 바둑에 비유
- 정치를 바둑에 비유하면

이렇게 “...을 바둑에 비유하면”과 같이 말한 예가 FTA, 대선구도, 글 쓰는 버릇, 축구, 부부싸움, 직접청구권, 병법, 취업, 자전거 구입 요령, 커피, 인문학의 선택 등 수십 가지가 된다. 이 외에도 세상사를 바둑에 비유한 경우는 많다. 박이문(2014)과 이명숙·곽강제(2014)는 바둑으로 철학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매스컴에서 바둑용어로 세상사를 묘사하고 있다. 포석, 자충수, 수순, 대마불사 같은 바둑용어를 30여 가지 끌어다가 시사용어로 쓰고 있는 것이다. 세상사를 묘사하는 시사용어로 바둑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둑이 세상사와 비슷하다는 암묵적 가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바둑지혜론의 배경과 내용

1. 바둑지혜론의 유래

바둑에서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는다는 관념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여기서는 편의상 바둑 속에서 삶의 교훈과 지혜에 관한 내용을 논하는 것을 ‘바둑지혜론’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바둑지혜론에 관한 내용은 중국 원나라 때 나온 바둑서 <현현기경(玄玄棋經)>(嚴德甫, 晏天章, 2006)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책의 서문을 쓴 우집과 구양현은 바둑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집은 바둑이 우주를 본 따 만들어졌고, 그래서 음양의 이치나 우주의 법칙, 세상의 도와 인간세상의 흥망성쇠하는 이치가 담겨 있다고 본다. 이러한 토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바둑에는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요구되며, 다른 기예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우집은 “바둑을 경영하는 방법과 공수를 살펴 결정하는 도는 국가에서 정령을 출납하는 기틀과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방법과 같으니, 이것을 배워서 익히는 것은 평안할 때 위태로움에 대비하는 계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바둑지혜론을 얘기하고 있다.

한편 구양현은 청소년기에 배우는 육예(六藝)를 열거하고 이 중에서 사(射), 즉 활쏘기를 하고 난 뒤 여가시간에 투호와 바둑 두는 것을 언급하며, ‘바둑으로 지혜를 점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양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바둑에는 산법(算法)이 있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바둑의 교훈과 지혜에 관해 가장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은 <현현기경>의 공동

저자인 안천장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바둑은 기예로 그 수가 많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 속에는 지극한 도리가 담겨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때문에 조석으로 익히며 넓은 의(義)와 바른 이치로 가까이하면 어떤 일에 부딪히든지 넉넉한 마음이 짐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대하든지 소홀히 여김도 없게 된다.”

안천장은 바둑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며, 올바르게 익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있게 대처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경솔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다.

이처럼 바둑지혜론에 관한 주장이 있었음에도 현대 이전까지는 이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고대 중국에서 바둑을 전쟁의 기예로 보아 병법과 같은 종류로 간주함으로써 병법이나 전략의 측면으로 바라보았고, 한국에서는 바둑을 흥미롭고 격조 있는 신선놀음 즉 놀이로만 간주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바둑지혜론이 구체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경으로 생각된다. 국내 기관에서 프로기사 김수영, 백성호가 ‘프로의 정신’에 관한 특강을 했고, 정수현은 대학에서 ‘바둑과 인생’이라는 특강을 했다. 이후 정수현은 2002년에 <인생과 바둑>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무렵 LG경제연구원의 조은성(2004)이 ‘바둑에서 배우는 경영전략’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썼다. 이 연구는 위기십결에서 기업경영에 관한 전략을 도출하는 내용이다. 이후 정수현은 엑셀런스코리아에 ‘바둑과 경영’을 연재하였고, 한국경제아카데미의 웹사이트에서 ‘바둑과 인생’을 58회 연재하였다. 그 후 이 주제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강의와 칼럼을 선보였고, <바둑 읽는 CEO>라는 책도 저술했다.

이렇게 보면 바둑지혜론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에게서 강하게 표출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인생과 경영의 양 측면에 시사점을 주는 내용들이 연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도에는 위기십결에서 삶의 지혜를 도출한 장석주(2013)의 <인생의 한 수를 두다>가 나왔고, 조훈현(2015)의 <고수 생각법>이라는 책이 나와 바둑의 복기 관습 등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루었다. 김영상

(2016)의 <반상 위의 전쟁>이라는 책에서도 바둑지혜론을 다루었다.

2. 바둑지혜론의 소재(所在)

바둑에서 교훈과 지혜를 얻는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바둑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둑을 두려면 바둑판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요령과 전략 등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인생살이나 세상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둑지혜론은 바둑 분야의 관행이나 사고방식 같은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둑의 요령과 전략은 바둑격언에 잘 나타나 있다. 바둑에서는 100여 가지의 격언으로 바둑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격언 중 30여 가지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피고아’라는 격언을 보자. 남을 공격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이 격언은 상대방 돌을 공격할 때 기분에 치우쳐 마구 쫓다가 역습을 당해 곤경에 처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것은 공격의 기술에 관한 격언이지만, 투자나 새로운 시도 등을 할 때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점검하고 대시하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남의 약점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은 어떤지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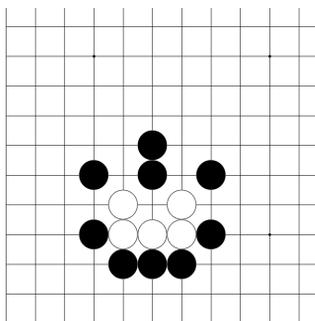
‘청심과욕(淸心寡慾)’, 즉 마음을 맑게 하여 욕심을 줄이라는 격언은 바둑과 세상사 양쪽에서 쓰이고 있다. 바둑이나 인생살이에서 파탄의 주요 원인은 욕심이라고 보아 적절히 욕념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이처럼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바둑격언에는 신물경속, 부분보다 전체를 보라, 정성은 외운 다음 잊어버려라, 세고취화, 사소취대 등 30여 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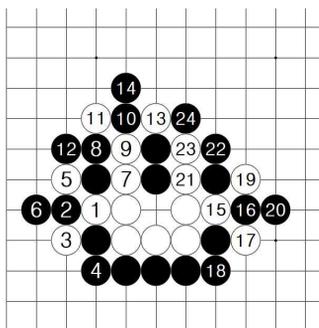
격언에는 없지만, 바둑을 둘 때 적용하는 방법 중에서 삶에 적용되는 것도 있다. 예컨대 ‘강점으로 승부하라’, ‘상대의 실력이나 기풍에 맞춰 대응하라’, ‘싸우면서도 타협을 모색하라’와 같은 것들은 격언으로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바둑을 둘 때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이나 요령이다.

바둑계의 독특한 관행이나 사고방식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예컨대 대국을 하고 나서 복기(復棋)하는 관습은 다른 분야에도 교훈을 주는 좋은 관행이다. 또한 제자가 스승을 꺾고 올라서는 것을 스승의 ‘은혜를 갚는다.’고 간주하고, 배울 점이 있다면 스승이 제자에게도 배울 수 있다고 보는 문화도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바둑지혜론은 바둑돌 모양을 담은 바둑기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로서 [그림1]과 같은 모양을 보자. <현현기경>에 나오는 문제로 흑돌 속에 갇힌 백이 탈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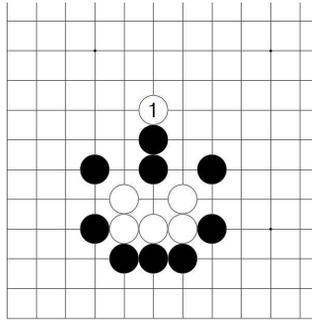


[그림1] 백이 탈출하는 문제



[그림2] 마구 달아나는 수는 실패

이 모양에서 탈출로를 찾아 [그림2]의 백1 이하로 마구 달아나는 수는 결국 흑24에서 실패하게 된다.



[그림3] 수읽기를 해야 발견

이 모양은 [그림3]처럼 백1의 코볼임을 해야 탈출할 수 있다. 직접 달아나지 않고 외부에 손을 써서 탈출하는 것이 절묘한데, 이 모양은 수읽기를 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빈 구멍을 찾아 움직이면 실패한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이 예와 같이 바둑돌이 담긴 바둑기술에서도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3. 바둑지혜론의 내용

바둑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둑이 영토경쟁이자 문제해결이라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바둑에서 배울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쟁을 하는 방법이나 전략을 배울 수 있고, 바둑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가져다가 삶의 문제해결에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보는 바둑지혜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음가짐과 시각

바둑에는 대국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바둑판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내용이 꽤 많다. 마음가짐과 시각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기술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실전대국을 보면 마음의 상태나, 바둑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승패가 영향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인생에서도 마음가짐과 시각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바둑에서 강조하는 마음가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상대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라. * 반전무인, 경적필패
- 과욕을 부리지 마라. * 부득탐승, 청심과욕
- 신중하게 생각하고 두라. * 신물경속
- 대마 잡고 바둑 진다.
- 불리해도 참으며 기다려라.

이것들은 의연함, 욕념의 조절, 신중함, 인내심 등을 강조한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마음가짐들이다. 한편 바둑에서는 바둑판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 부분보다 전체를 보라.
- 제삼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 남의 집이 커 보이면 진다.
- 정석은 외운 다음 잊어버려라. *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마라.

이것은 사태나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전체적 시각, 객관적 시각, 균형적 관점,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 삶의 현장에서도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바둑에서처럼 명료하게 지침을 제공하는 분야는 없는 것 같다.

(2) 문제해결의 기술

바둑경기는 주어진 장면에서 적절한 수를 찾아내는 ‘선택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선택은 목표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문제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바둑을 복잡한 문제해결의 본보기라고 하는데(김영재, 1995), 철학자 칼 포퍼(1999)는 인생도 문제해결의 연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바둑에서 문제해결의 기술, 즉 선택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바둑에서 수를 선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이루어진다(정수현, 김바로미, 2019).

- 상황분석: 주어진 상황을 파악한다.
- 목표설정: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한다.
- 대안탐색: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수들을 선정한다.
- 변화추리: 각 수로부터 나올 사태를 추리한다.
- 결과판단: 추리된 예상도를 비교하여 선악을 판단한다.

이 문제해결 모형에 따르면 각 단계별 과업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바둑에서는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가치 판단’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인 지식으로 정립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큰 곳보다 급한 곳을 먼저
- 발전성 없는 곳을 서둘러 마라
- 중복형과 편재형을 피하라
- 뒷문 열린 집은 가치가 작다
- 다음 수 없는 수(후속수단)는 신통치 않다
- 일방가는 가치가 작다

1) 마지막에 ‘착수선택’을 넣을 수 있다.

이것들은 선택을 할 때 긴급성, 발전성, 능률성, 후속수단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3) 경쟁의 전략

바둑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인데, 인간의 삶도 기본적으로 타인과 경쟁하는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바둑에서 경쟁하는 전략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바둑에서 배울 수 있는 경쟁 전략을 몇 가지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 싸우려면 먼저 분석을 하라.
- 자신의 강점으로 승부하라.
-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라.
- 세력이 강한 곳에서 싸워라.
- 상대의 전력을 고려하여 대응하라.
- 싸우면서도 타협을 모색하라.

이러한 내용은 대체로 <손자병법>, <전쟁의 기술>과 같은 병법서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4) 리더십

바둑에는 여러 가지 용병술(用兵術)이 담겨 있다. 용병술이란 전쟁에서 군사를 지휘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나 기술을 가리키는 말로, 운동 경기에서 선수를 부리는 기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사용된다. 바둑을 두는 대국자는 전쟁을 하는 사령관이나, 조직을 지휘하는 리더와 같으며, 병사에 해당하는 바둑돌을 용병하여 목적을 수행한다. 전쟁에서 장수가 용병술을 잘못 발휘하면 전투에서 패하고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듯이, 바둑에서도 대국자가 용병을 잘못하면 영토 획득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돌들이 잡히

는 비극을 초래한다. 이러한 바둑의 용병술은 조직에서 리더가 행사해야 할 리더십과 조직관리의 방법과도 통한다. 바둑에서 배울 수 있는 용병술 및 조직관리의 내용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 부분과 전체를 조화시켜라.
- 부하의 체면을 세워줘라.
- 탄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라.
- 중복형을 피하라.

리더십에 관한 내용은 위기관리와 중첩되는 것들이 있다.

(5) 위기관리

바둑에는 돌의 안전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 바둑돌이 위험해지면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인간사회에서도 안전관리와 위기관리가 중요한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위기관리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근거 없는 돌을 함부로 만들지 마라
- 미생마 근처에서 싸우지 마라
- 양곤마는 무사하기 어렵다
- 축은 미리 따내라
- 공피고아(攻彼顧我)
- 대마에 가일수
- 봉위수기(逢危須棄)
- 희망 없는 돌은 포기하라

(6) 자기계발과 교육

바둑은 자기계발이나 교육방법에 관한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바둑에서 강조하는 가장 유명한 자기계발의 비결은 ‘복기(復棋)’이다. 바둑경기를 하고 나서 수의 잘잘못을 반성적으로 분석하는 복기는 다른 분야에서도 응용하면 좋을 중요한 노하우이다. 이 외에도 바둑에는 자기계발 및 교육방법에 관한 노하우가 꽤 많다. 그것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최신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 실제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 지식을 격언으로 배운다.
- 고수의 수법을 모델링한다. * 기보감상
- 수행을 하고 나서 복기를 한다.
- 비판적 의견을 수용한다.

바둑지혜론의 6개 영역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바둑은 마케팅 관리, 처세술에 관한 교훈을 주기도 한다. 유행의 흐름을 읽어야 하고, 고객이 불만을 느끼면 신정석(신상품)이 나오며, 고객을 팬으로 생각하여 속임수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은 마케팅에도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다. 한편 싸우면서도 타협을 하고,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지 않는 것 등은 사람들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인 처세술(處世術)에 관한 교훈을 준다.

4. 바둑지혜론의 효용

바둑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교훈과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생의 교훈과 지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굳이 바둑에서 이런 내용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바둑지혜론의 의미 내지는 효용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1) 자연스러운 체득

인생의 교훈과 지혜는 외부로부터의 주입에 의해 배우게 되는 데 비하여 바둑 지혜론은 대국자들이 바둑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삶의 교훈을 배운다고 하자. 어떤 사태가 님을 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이 교훈은 이해를 하면서도 그 중요성을 통감하며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바둑에서 상대방 쪽에 가서 바둑판을 바라보거나, 구경꾼의 눈이 더 정확하다는 ‘반외팔목(盤外八目)’의 체험을 하게 된다면 이 교훈을 자연스레 체득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인생의 문제해결에 관한 이론도 이것을 배우고 요령을 이해했다고 해도 문제해결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둑을 통해 배우는 문제해결은 매 장면 수읽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수를 읽지 않고 감각적으로 두거나, 손 따라 두는 습관의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고 교정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흔히 바둑팬들은 바둑을 두고 나서 “욕심을 너무 부려 패했군.”과 같은 반성을 한다. 이러한 반성을 통하여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는 이런 통찰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경험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둑지혜론은 삶의 교훈과 지혜를 바둑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체득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새로운 깨달음

바둑지혜론의 효용 중에는 어떤 교훈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새삼스럽게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배웠어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둑에서 ‘부분보다 전체를 바라보라’는 교훈을 통하여 전체적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또한 ‘정석은 외운 다음 잊어버려라’라는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게 된다.

살아가면서 안전관리와 위기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지만,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둑에서 고수들이 미생마를 어떻게 관리하고, 뒷맛이나 약점 등 위협요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게 되면 안전관리와 위기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둑은 영토싸움이지만, 고수들은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타협을 하며 사태를 해결한다. 이것을 관전기작가들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²⁾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노사분규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바둑고수들의 행태를 통하여 경쟁하면서도 타협을 하며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인생의 이치를 바둑을 통하여 새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둑지혜론의 묘용(妙用) 중 하나이다.

(3) 색다른 지식

바둑지혜론 중에는 인생의 교훈학에는 없는 색다른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바둑을 두고 나서 하는 ‘복기’는 시행착오를 고치고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둑의 관행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복기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근래 한국사회에서 ‘복기’는 반성적 성찰의 대명사가 되었다.

바둑의 기술적 지식을 100여 개의 짙막한 격언으로 만들어 학습시키는 것도 다른 분야에는 없는 색다른 지식이다. 격언으로 된 지식은 짧아서 평생동안 잊어버리지 않으며, 실제 장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토경쟁인 바둑에서 ‘버림’을 강조하는 것도 바둑만의 색다른 지식이다. 바둑에서는 사소취대, 기자쟁선, 봉위수기, 3선의 돌 키워 버리기 등과 같이 버리는 것을 강조하며, 사석전법(捨石戰法)도 가르친다. 버림의 묘를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아마 바둑이 유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색다른 지식은 바둑만의 특별한 교훈이기 때문에 고유한 가치와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태산이 흔들리듯 요란했는데 쥐 한 마리 지나간 정도의 미동에 그쳤다는 뜻.

IV. 맺으며

예로부터 바둑은 인생이나 세상사와 닮은 것으로 인식되어왔고, 그로 인해 바둑에서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훈과 지혜가 바둑의 특별한 효용이라고 보아 바둑의 교훈에 관한 유래, 소재, 내용 등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둑에서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관념은 바둑과 인생이 닮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바둑지혜론은 옛날부터 암묵적으로 있었으나, 뚜렷하게 그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았고, 현대에 와서 기업의 경영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둘째, 바둑의 교훈과 지혜는 바둑을 두는 자세와 요령을 담은 바둑격언에 많이 담겨 있으며, 바둑계의 특별한 관행이나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것도 있다. 또한 바둑돌의 모양이 담긴 기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바둑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지혜는 마음가짐과 자세, 문제해결의 기술, 경쟁의 전략, 리더십, 위기관리, 자기계발과 교육에 관한 것이다. 좀 더 넓게 보면 마케팅관리, 처세술 등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바둑지혜론은 삶의 교훈과 지혜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거나, 새삼스럽게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도 하며, 바둑에만 있는 색다른 지식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바둑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둑의 교훈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다른 내용은 주로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과 주장에 터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더욱 더 풍성하고 정교한 내용으로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한 교훈과

지혜를 바둑에서 터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일석이조의 유익한 공부라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경언(1995). 한국바둑인물사. 서울: 한국기원.
- 김영상(2016). 반상 위의 전쟁. 서울: 깊은 나무.
- 김영채(1995). 사고와 문제해결심리학. 서울: 박영사.
- 박이문(2014).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지와 사랑.
- 이명숙, 곽강제(2014). 철학과 학문의 노하우. 서울: 서광사.
- 장석주(2013). 인생의 한 수를 두다. 서울: 한빛비즈.
- 정수현(1997). 반상의 파노라마. 서울: 시와 사회.
- 정수현(2013). 바둑을 통한 삶의 비유가 갖는 의미. 바둑학연구 10(2), p11-23.
- 정수현, 김바로미(2019). 바둑학개론. 명지대학교 출판부.
- 조은성(2004). 바둑에서 배우는 경영전략. LG경제연구원 리포트.
- 조훈현(2015). 고수 생각법. 서울: 인플루엔셜.
- 嚴德甫, 晏天章(2006). 현현기경(玄玄棋經) 상. 홍경령 역. 전원문화사.
- Le, K. K. L.(2018).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the Baduk Cultur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of Vietnam.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opper, K. R.(1999). All Life Is Problem Solving. P. Carmiller 역. London: Routledge.